문체부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 도내 3곳 선정

전통 체험으로 힐링에 '최적'

남원 지리산한옥마을

한옥게스트하우스 달팽이

임실 이랑 한옥스테이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도내 3개소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내에는 남원 '지리산한옥마을'과 '한옥게스트하우스 달팽이', 임실 '이랑 한옥스테이'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며, 올해까지 4개 시·군 총 25개소가 선정됐다.

그간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다도(茶道)와 우리 소리 배우기, 전통공연, 선비학교 문화체험, 갓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가옥들은 전통한옥을 한국대표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도자기·한지공예 체험 등 한옥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과 전통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추억이 되는 아름다운 전통 경험과 힐링을 안겨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 한옥게스트하우스 달팽이.

〈사진=전북도청 제공〉

장성국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 "내부 문제로 불편 끼쳐드린 점 사과"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이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저희 재단 내부문제로 시민들께 많은 염려와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이번일로 상당 기간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해 온 모든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직 중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업무에 임하는 조직원의 자세 등 내부조직 개선작업과 조직 확장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좋은 관계 상태로만 생각한 나머지 때때로 신중하지 못한 저의 언행이 소통부족으로 의도와 달리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져서 일부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진정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관련기관인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저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통보받았고 이 통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임기동안 재단의 구성원들이 500만명 문화관광도시 비전을 달성해나가는데 각자 갖추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내달 1일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며, 2020년 카드 발급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전 완료 문자를 발송한다. 단,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소유자나,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발급자와 재충전 희망자(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 카드)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재충전의 경우 전화(ARS)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14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도 지난해까지는 법정대리인 없이는 불가했지만,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가맹점을 중점 홍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과 온라인 및 전화 결제가 가능한 비대면 이용 가맹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센터(1544-3412)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jbct.or.kr) 자주 묻는 질문(FAQ) 또는 문화관광팀(063-230-746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익산 미륵사지

익산시는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명소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54만여명이 찾은 익산 미륵사지는 20년에 걸쳐 보수를 마친 미륵사지석탑과 더불어 미륵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지로 가족, 친구, 연인, 나홀로 여행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은 지표면 높이에 맞춘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주변 경관과 역사자원의 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로 선정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익산 미륵사지가 '2020 한국관광의 별'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미륵사지가 2020 한국관광의 별과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익산이 가진 관광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 김병종미술관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광한루에 이어 남원에서 두번째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2019~20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중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점검, 3차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2018년 3월에 개관, 남원출신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병종 작가가 유년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갈망했던 문화예술 혜택에 대한 염원을 담아, 고향 후배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400여점의 작품과 5,000여점의 자료를 남원시에 기증해 건립된 곳이다

남원시는 이곳에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기획전시 'Dialogue-상춘곡(賞春曲)'을 개최할 예정으로, 전시는 한복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시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획되었다.

미술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을 상기시켜줄 봄 전시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인환 관광과장은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술관이 진정한 치유와 힐링이 있는 곳, 그래서 더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